

범여 148 vs 범야 148...캐스팅보트 주도권 전쟁

국민의당 분당...국회 '新4당 구도' 재편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5일 집단 탈당과 함께 국민의당 분열이 현실화하면서 국회는 '신(新)4당 구도'로 재편되게 됐다. 특히 3당과 4당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미래당'과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정치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 국회 의사결정 구도는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래당과 민평당은 향후 정국에서 치열한 캐스팅보트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의 분석을 종합하면 범여권과 범야권은 우호적 의석 수를 모두 합할 경우 재적 의원 296명의 절반인 148석을 똑같이 확보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날 국민의당에서 탈당의 의사를 밝힌 통합반대파 의원들의 숫자는 15명이다. 기존 39석이었던 국민의당은 24석의 정당이 됐으며 9석을 가진 바른정당과 합당해 창당하는 미래당의 경우 33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석수에 추가적인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민평당은 우선 15명의 의원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금명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래당으로 합류하는 의원들 가운데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의원인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의 경우 당적은 미래당이지만 정치적 성향과 행보로 볼 때 민평당과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민평당 측도 이들에 대해 "마음으로는 탈당해 민평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여기에 아직 거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전복의 이용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평당이 우선순위"라고 밝힌 만큼 결국은 민평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후 국회 표결에서는 민평당이 현재의 의석보다 4표 많은 19표, 미래당이 4표 적은 29표를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3당 미래당· 4당 민평당

범여·범야권으로 양분

민주·한국당 구애 경쟁도

결국, 범여권의 경우 민주당 121석에 민평당(15석+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정세균 의장(1석) 등 여권에 우호적인 의석수를 합치면 정확히 148석이 된다는 주장이다. 범야권도 자유한국당(117석)과 미래당(29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1석) 등 148석을 가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결과는 미래당·민평당·정의당 등이 이 같은 계산표대로 움직일 것이란 전제 하에 나온 것이어서 사안에 따라 다른 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결 구도를 도식적인 대결 구도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치열한 물밑 표싸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의원은 손금주(나주·화순)·박선숙(비례) 의원이 있다. 여기에 김성식·이찬열 의원도 있지만 이들은 수도권 의원이어서 민평당 합류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대선 때까지 안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다가 최근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평당에 합류한 박지원 의원과는 '원조 박남배'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범여권과 범야권 사이에 팽팽한 의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미래당과 민평당의 캐스팅보트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여당과 제 1야당의 두 당을 향한 구애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조배숙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의원 15명 탈당...민평당 창당 합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기로 한 의원 15명이 5일 탈당했다.

민평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준위로서의 마지막 회의를 했다. 소속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날 오후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탈당된 의원은 김경진, 김광수, 김종희,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이다. 모두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비례대표인 박주현, 이상돈, 장

정숙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하지 못했다.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출당을 거부해 아쉽게도 오늘은 탈당계를 못 낸다"며 "마음으로는 이미 탈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평당은 이날 당의 정강·정책을 정하는 등 창당 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운영일 의원은 "민평당은 민생·평화·민주·개혁·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 방향으로 준비했다"며 "정치적으로는 다당제 기반의 합의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정착, 상생경제, 혁신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국민의당과 합당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대는 현역 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각 당협 대표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24일 창당된 바른정당은 출범 1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양당의 통합은 13일 양당의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마무리된다. 국민의당은 8~10일 전당원 투표를 한 후 11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통합에 대한 당내 절차를 마치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통령 '평창 외교 주간'

김영남·펜스 등 회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점검해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최고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 방한은 최초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김 상임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김 상임위원장이 따로 문 대통령 예방 계획을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평창올림픽 개막일인 9일부터 2박 3일간 현방상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우리 측에 전 해왔다. 대표단은 3명의 단원과 18명의 지원 인원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3명의 대표단원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림픽 행사장에서 자연스럽게 김 상임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높다. 9일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개막식이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되고, 10일에는 관동 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예선 경기가 있다.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 선수단 및 예술단이 참여하는 이 세 일정에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며, 문 대통령도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조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대 관심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나 별도의 장소에서 김 상임위원장과 따로 만나느냐지만 아직 회담 시기와 형태 등에 대한 양측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상임위원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접촉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한국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 부통령, 미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원 국민의당 탈당 러시

광주, 9명중 5명 가세...나머지 고심 전남, 25명중 19명 민평당 합류 선언

국민의당이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의 탈당이 붐을 이루며 빠르게 분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은 현재 탈당 후 민주평화당 합류나 무소속, 미래당 전류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5일 광주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전체 시의원 9명 중 이은방 의장을 제외한 8명이 모여 탈당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는 등 이

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정치 행로를 모색했다. 김민중(광산4), 박준수(남구3), 유정심(남구2), 조영표(남구1) 의원을 비롯, 이은방 의장도 탈당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김옥자(광산3) 의원은 지역구 권은희 국회의원을 따라 미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들 탈당과 중 일부는 특정 정당에 몸담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는 방안도 고민 중이며 유정심 의원 등 4명 가량은 민주평화당에 합류했거나 민평당행을 앞두고 있

다. 또 미래당에 합류한 김동철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문태환·이정현 의원, 중재파로 남아있는 송기석 국회의원 지역구의 심철의 의원 등은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탈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 19명도 이날 집단 탈당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행한데 따른 반발이다. 국민의당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 탈

당과 민주평화당 합류를 선언했다.

전남도의원 57명 중 국민의당 소속은 25명이었다. 이날 집단 탈당에 참여한 도 의원은 모두 19명이다. 앞서 서일용 의원이 개별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도의원은 총 20명이다. 탈당하지 않은 5명 중 일부도 추가 탈당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에 따라 탈당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들은 이날 탈당 성명에서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은 패권

주의를 배격하고 민생을 위해 경쟁하라는 국민의 바람과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안 대표의 행태는 사당화와 독선의 극치"라며 "퇴행적 독재·독선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 보수 적폐 아합으로 치닫는 국민의당을 떠나 개헌, 선거구제 개혁, 민생개혁의 성공을 위해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월 9일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날!
세계에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세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차량2부제 의무시행
기간 : 2018.2.10~2.25(16일간)
*날씨가 추우니 개인방한 준비를 꼼꼼히 해 주세요!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